

떠꺼머리 총각이 선사한 보물

— 신중흡중 「피브리콜라 · 서울렌시스」 —



이 순 형

얼마전 「개같은 나의 인생」이란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별 희한한 영화제목도 다 있구나하고 실소를 금치 못했던 적이 있다. 우리 말에서 개 같다니, 곰 같다니, 쥐새끼 같다니 하여 동물을 들이댈 때에는 대체로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뜻으로 해석되는 일이 많다.

「사람이 사람다워야」하듯 그 본질적 속성을 잃지 않고 유지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요, 이를 잃으면 욕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리라.

기생충도 이른바 숙주특이성이라 하여 사람, 개, 쥐 등 동물의 종류에 따라 기생을 하는 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있다. 이를테면 사람회충은 사람에게만 기생하고 돼지회충은 돼지에만 기생하며 개회충은 개에만 기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숙주특이성은 대체로 동물의 해부생리학적 요인이나 면역학, 유전학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지만 때로는 식습관, 행동양식 같은 생태학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한다.

즉 사람이 개같이 행동하고 돼지같이 먹을 때 개나 돼지의 기생충이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것이다. 기생충은 눈도, 코와 귀도 없기 때문에 자칫 사람을 개나 돼지로 오인하는 수가 많다.

다시 말해서 하등동물에 기생하는 기생충이 경우에 따라 사람에게도 옮겨오는 일이 적지 않기에 기생충학에서는 사람의 기생충뿐 아니라 동물의 기생충도 다루어야 하고, 의사가 되려면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동물의 기생충을 어느정도 공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각설하고, 우리 서울의대 기생충학교실에서는 1964년에 쥐에서 새로운 기생충을 발견하고 「피브리콜라 · 서울렌시스」라 명명한 바 있다. 서울의대 구내에서 잡은 집쥐의 창자에서 생전 처음보는 흙충(디스토마)이 나왔으므로 이를 신중으로 보고하면서 서울의대를, 나아가 서울을

하등동물에 기생하는 기생충이 경우에 따라
사람에게도 옮겨오는 일이 적지 않기에,
기생충학에서는 사람의 기생충 뿐 아니라 동물의
기생충도 다루어야 한다.

기념하기 위해서 「서울렌시스」란 증명(種名)을 붙인 것이다.

우리 교실원들은 이 발견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했지만 주위의 동료들 반응은 별로 시원치 않았고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까짓 쥐의 기생충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냐는 등, 수의사가 해야 할 연구가 아니냐, 또는 사람의 질병과 관계없는, 쓸데없는 연구가 아니냐는 등 칭찬은 커녕 핀잔받기에 바쁠 지경이었다.

그런데 드디어 기적이 나타난 것이다. 「피브리콜라·서울렌시스」를 처음 발견한지 18년의 세월이 흐른 1982년의 어느날 25세 되는 띠꺼머리 총각이 복통과 고열로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들어왔다. 입원 후에도 복통과 설사와 고열이 있었는데, 검사소견상 호산구 증가와 종류미상의 기생충의 총란이 발견되어 구충을 해보니 뜻밖에도 「피브리콜라·서울렌시스」가 79마리나 나온 것이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이 흡충의 생활사를 모르고 있었으므로 무엇이 감염원인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이 총각의 근래의 행적을 캐물었더니 입원하기 10일전에 뱀을 날로 먹었다는 대답이었다. 사연인 즉 띠꺼머리총각은 서울에 사는 공무원으로, 결혼을 앞두고 약혼자와 여주신록사에 놀러 갔었는데 그곳에 뱀장수가 있어 뱀이 몸에 좋다고 권유하는 바람에 뱀을 먹었고 일부 내장은 날로 먹었다는 것이었다.

이 얘기를 들은 우리 교실의 발 빠른 교실원이 신록사로 달려가 뱀을 많이 사와서 자세히 조사해본 결과, 실로 무수히 많은 이 흡충의 애벌레(피낭유충)가 뱀의 살과 내장에 기생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이 애벌레를 쥐에 먹인 결과 옛날에 쥐에서 얻은 충체 및 총각환자에서 얻은 충체와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었고 급기야는 이 애벌레를 교실원들이 직접 먹은 후 다시 구충하여 얻은 충체와도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피브리콜라·서울렌시스」는 쥐의 기생충일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기생충(人數共通寄生蟲)임을

「피브리콜라, 서울렌시스」 흡충의 생활사를 모르고
 있었으므로 무엇이 감염원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이 총각의 근래 행적을 물었더니 입원하기
 10일전에 뱀을 날로 먹었다는 대답이었다.

증명한 것이다. 확실히 사람 기생충병의 주요원인이 된다는데 용기를
 얻어, 더 많은 환자를 찾아내고 또 쥐에서의 기생상황도 밝히기 위하여
 전국 규모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5명의 감염자를 더 찾아
 내었으며 집쥐의 3.5% 가량이 이 흡충에 걸려 있음을 알아내었다.

그 다음은 생활사를 밝히는 것이 문제였다. 뱀이 감염원임을 알았으니
 뱀은 무엇을 먹고 이 흡충에 걸리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밖에. 그래서
 자연생태계에서 뱀의 먹이가 되는 개구리를 잡아 조사한 바 예측했던
 대로 개구리에서도 이 흡충의 애벌레가 나타난 것이다. 이어 개구리는
 올챙이 때부터 감염되며, 올챙이는 물달팽이 종류에서 자라나오는
 유미유충(有尾幼虫)에 의하여, 또 물달팽이는 쥐똥에 섞여나오는 이
 흡충의 충란에 의하여 감염된다는 사실을 자연계와 실험실에서의 연구를
 통하여 밝혀내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남았다. 쥐는 무엇을 먹어서 이 흡충에 걸리나
 하는 문제였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당시 서울의대 구내의 상황을
 재구성해 본 결과 쥐가 뱀을 먹었다는 결론을 얻은 것이다. 쥐가 실험
 후에 버린 죽은 뱀을 뜯어 먹은 것이었다. 아마도 자연계에서도 쥐가
 죽은 뱀이나 개구리를 먹거나 아니면 올챙이를 잡아 먹어 걸릴 것으로
 추측된다.

이로써 우리 교실에서는 새로운 「사람의 기생충병, 피브리콜라·
 서울렌시스」의 병원충, 보유숙주, 제1 및 제2중간숙주를 비롯한 생활사,
 전파방식, 병리, 증상, 진단 및 치료에 이르는 모든 것을 세계 최초로
 밝혀내는 개가를 올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학문적 역량을
 세계에 과시하게 된 셈인데, 이는 오로지 뱀을 날로 먹은 떠꺼머리
 총각으로 부터 비롯된 것이다.

떠꺼머리 총각(아니, 예정대로라면 이미 결혼하여 뱀먹은 정력으로
 자녀도 많이 두었을)이며, 복 많이 받으면서 잘 살기를! ㉞

〈필자=서울의대 기생충학 교수〉